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난 10년간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가족기능 및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형태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가족가치 특히,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와 2016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의 일부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2016년도에는 자녀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12.3%p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대하였다. 반면, 과거에 비하여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은 커진 반면, 실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모는 경제력이외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경제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으므로 부모로서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1. 서론

우리사회는 지난 10여년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재생산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만혼, 비혼, 이혼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선영 외, 2009)¹⁾. 이러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다

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자녀양육은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더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 및 미혼부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구는

* 본 고는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조숙인, 김정민)을 토대로 작성됨.

1) 박성연·박응임·한세영(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30(6), 15-28.

2015년 기준 1,783가구로 전체 가구의 9.5%를 차지하며 소폭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6)²⁾. 또한 불임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딩크족(DINK), 싱크족(SINK), 싱커족(THINKERS)으로 지칭되는 '의도적 무자녀 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네이버 백과사전, 2016)³⁾이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 또한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출산,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막내자녀 출산부터 자녀의 첫 결혼까지의 기간과 빈 등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최연실, 2015: 27)⁴⁾.

본고에서는 가족형태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가족가치 특히, 한국인의 자녀양육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와 2016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2008)⁵⁾와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을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집 대상 및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문항을 2016년도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대략적인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수행된 2016년도 연구의 방법과 주요 결과를 근간으로 기술하였다.

2.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2016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을 파악하고자 전국 20대~50대 성인 총 1,013명의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참고하여 인구구성비에 맞게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성,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2008년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성, 연령, 지역규모, 학력,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표집한 전국의 20~55세 성인 총 3,747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양육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조사(김은설 외)에서 사용한 문항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⁶⁾

3. 응답자 특성

2016년도 20~50대 성인 조사에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연령대별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중에는 미혼자 259명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 57명이

2)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 한부모 가구 비율

3) 네이버 지식백과 웹사이트(<http://terms.naver.com>)에서 2016년 10월 인출

4) 최연실(2015). 한국가족의 변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최연실 외(2015). 한국가족을 말한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13-41.

5)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6) 원 질문지에는 부모 역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 양육 방식 및 지원 요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비교문항만 제시함.

〈표 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자녀기대	• 자녀가 뛰어나길 바라는 것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
부모 역할	• 부모의 자녀 지원방식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부모 역할 수행수준 평가 및 불충분 영역*
부모 영향력	• 자녀 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수준
양육문화 변화	• 변화한 점과 변화하지 않은 점

〈표 2〉 20~50대 성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백분율 (수)	구 분	백분율 (수)
전체	100.0 (1,013)	연령대	
성별		20대	21.7 (220)
여성	49.6 (502)	30대	24.0 (243)
남성	50.4 (511)	40대	28.0 (284)
		50대	26.3 (266)
결혼여부		거주지역	
미혼	25.6 (259)	대도시	46.1 (467)
기혼	72.6 (735)	중소도시	40.3 (408)
이혼/사별/별거	1.9 (19)	읍면동	13.6 (138)
자녀유무		교육수준	
미혼	25.6 (259)	고졸이하	38.3 (388)
기혼유자녀	68.8 (697)	대학 재학	13.7 (139)
기혼무자녀	5.6 (57)	대학 졸업 이상	48.0 (486)
자녀수		월 가구소득	
0명	31.2 (316)	300만 미만	17.3 (175)
1명	16.7 (169)	300~450만 미만	42.3 (429)
2명	44.4 (450)	450~600만 미만	24.8 (251)
3명 이상	7.7 (78)	600만 이상	15.6 (158)

자료: 문우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

포함되어 있다. 자녀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316명, 자녀 1명 169명, 자녀 3명 이상은 7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008년도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취업 상태, 부모직업, 종교, 다문화가정 여부, 자녀 연령별 및 성별의 6가지 변인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교육수준, 자녀 유무 등의 변인에 의한 응답자 특성은 2016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2008년과 2016년 한국인 자녀 양육관의 변화

가. 자녀에 대한 기대

아들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한 2008년과 2016년의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들이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에서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던 2008년(33.5%)의

〈표 3〉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아들(1순위)

단위: %(명)

구 분	사회성	성격, 태도	학업 능력	신체	예체능적 자질	계(수)
2016년	37.3	32.7	13.0	12.9	4.1	100.0 (912)
2008년	32.4	33.5	21.8	10.5	1.8	100.0 (2,357)

주: 2008년 자료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십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2.

〈표 4〉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딸(1순위)

단위: %(명)

구 분	신체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계(수)
2016년	31.3	31.2	19.1	13.2	5.1	100.0 (862)
2008년	28.4	22.9	21.8	19.3	7.5	100.0 (2,093)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십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3..

결과와 달리 2016년에는 사회성(대인관계, 리더십)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37.3%)가 가장 많았다. 또한 2008년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기대한 부모가 21.8%였는데 반해,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3%로 줄어들었다. 한편, 예체능적 자질(음악, 미술, 운동 등)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2008년에 1.8%인데 반해, 2016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2016년의 부모는 2008년의 부모에 비해 아들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리더십이 있길 기대하며,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분야의 능력(예체능적 자질)이 뛰어난 경우 이를 환영하고 그 부분을 더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딸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08년에 딸이 뛰어나길 바라는 점 1순위는 신체적 조건(용모, 키, 몸매 등)(28.4%)이고, 그 다음으로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22.9%), 사회성(21.8%)이다. 2016년에는 신체적 조건과 성격 및 태도가 각각 31.3%와 31.2%로 2008년과 비교해볼 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딸이 예쁜 외모와 몸매, 큰 키 등 우

월한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 등 적응력 좋은 성격과 태도를 갖추길 바라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졌다. 또 다른 변화는 2016년에 학업 능력을 1순위로 응답한 부모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6.1% 감소한 점, 딸이 우수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부모의 비율 역시 2008년 7.5%에서 2016년 5.1%로 감소한 점이다. 아들이 뛰어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비율은 2016년에 2008년보다 증가하였는데, 딸에게는 감소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1) 부모주도성

2008년,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보다는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 역할을 더 강조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서 도와주는 사람이다'에 70%넘는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2008년에 비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부모 중심'의 양육보다는 '자녀 중심'의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 영향력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부모 비율이 2008년에 44.7%, 2016년에 57%로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을 포함하여 보면, 2008년에 조사응답자의 95.8%, 2016년 조사응답자의

98.1%가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이지만, 2016년의 부모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의 성장을 격려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모들의 생각은 8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하였다. 2008년에는 '대학 입학 전까지', 혹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8%였는데, 2016년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로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

〈표 5〉 부모주도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계(수)
2016년	72.9	27.1	100.0 (1,013)
2008년	70.1	29.9	100.0 (3,747)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3.

〈표 6〉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 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계(수)
2016년	0.2	1.8	41.1	57.0	100.0 (1,013)
2008년	0.3	3.8	51.1	44.7	100.0 (3,747)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4.

〈표 7〉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 경제적 지지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나	계(수)
2016년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2008년	11.2	62.6	14.7	10.2	0.6	0.6	100.0 (3,747)

주: 2008년 조사에서는 '결혼 10년까지'로 응답한 값을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와 비교함.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5.

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하였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6년에 더 증가하여, 결혼 후에도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초혼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모역할 수행 평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8년에 자신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5.7%였으나, 2016년에는 26.7%로 감소하였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08년 19.8%, 2016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8년 조사의 부모들 보다 2016년 본 연구의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매우 충분함	계 (수)
2016년	2.4	21.5	49.4	23.5	3.2	100.0 (697)
2008년	1	18.8	44.6	31.8	3.9	100.0 (3,046)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값을 충분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음과 비교함.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5.

〈표 9〉 부모 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학업 지도	양육 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기타	계 (수)
2016년	46.1	18.6	12.6	11.4	9.6	1.8	100.0 (167)
2008년	46.4	17.1	13.6	-	21.0	1.9	100.0 (601)

주: 2008년 조사에서는 양육지식 항목이 없었음.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5.

〈표 10〉 2008년과 2016년 연구결과 비교 요약

항목	2008	2016
아들에 대한 기대	성격·태도 > 사회성 > 학업	사회성 > 성격·태도
딸에 대한 기대	외모 > 성격·태도 > 사회성	외모/ 성격·태도 > 사회성
자녀성장에 대한 부모 영향력	44.7%	57.0%
경제적 지지	대학졸업(62.6%) > 취업(14.7%)	대학졸업(49.3%) > 취업(23.6%)
부모역할 수행수준 평가	보통(44.6%) > 충분(31.8%)	보통(49.4%) > 충분(23.5%) > 부족(21.5%)
불충분한 부모역할	경제적 지원(46.4%) >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21.0%)	경제적 지원(46.1%) > 정서적 지지(18.6%)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6.

집 중 조 명

부모 역할 중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08년, 2016년 변함없이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가장 많았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2008년과 2016년도 연구결과 비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8년 전과 비교하여 2016년도에는 자녀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12.3%p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대하였다. 반면, 과거에 비하여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은 커진 반면, 실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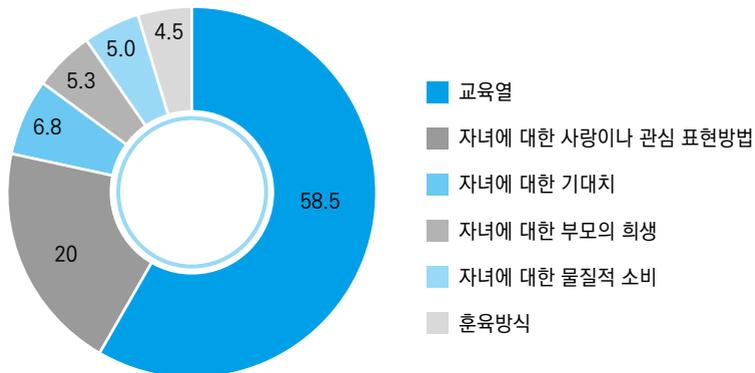
다.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님 세대의 양육 문화를 비교했을 때 변화하지 않은 점으로 응답자의 58.5%가 '교육열'을 꼽았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정은 양육 문화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양육문화에서 변하지 않은 점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 방법(20%), 부모의 희생(5.3%)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식에 대해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은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혹은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달라진 점으로는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26.8%)와 더욱 과열된 교육열(24.9%)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매체의 발달을 통해 손쉽게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7.4%),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과 훈육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사교육을 제공하여 선행학습을 하거나, 특목고 진학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미리 준비시키는 등 과도한 교육열 양상은 현대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는 변하지 않은 양육문화 뿐만 아니라 변화한 양육 문화에도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7.

[그림 1]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변하지 않은 점

〈표 11〉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현재 비교: 변화 없는 점

단위: %(명)

구 분	교육열	훈육 방식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방법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	계(수)
전체	58.5	4.5	20.0	5.0	6.8	5.3	100.0 (400)
성별							
여성	60.4	3.6	20.9	1.8	7.6	5.8	100.0 (225)
남성	56.0	5.7	18.9	9.1	5.7	4.6	100.0 (175)
$\chi^2(df)$			13(5)*				
연령대							
20대	66.7	-	8.3	16.7	8.3	-	100.0 (12)
30대	54.0	8.0	24.1	4.6	3.4	5.7	100.0 (87)
40대	60.9	3.0	20.7	4.1	5.9	5.3	100.0 (169)
50대	57.6	4.5	17.4	5.3	9.8	5.3	100.0 (132)
$\chi^2(df)$			14.3(15)				
자녀수							
1명	57.3	5.2	18.8	8.3	3.1	7.3	100.0 (96)
2명	58.7	4.2	20.1	4.2	7.6	5.3	100.0 (264)
3명 이상	60.0	5.0	22.5	2.5	10.0	-	100.0 (40)
$\chi^2(df)$			9.1(10)				
거주지역							
대도시	69.3	6.6	13.3	1.2	6.0	3.6	100.0 (166)
중소도시	53.5	1.6	21.4	8.0	8.0	7.5	100.0 (187)
읍면동	40.4	8.5	38.3	6.4	4.3	2.1	100.0 (47)
$\chi^2(df)$			38.3(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2.3	7.7	16.9	9.2	7.7	6.2	100.0 (65)
300~450만 미만	58.9	3.2	23.8	4.9	5.4	3.8	100.0 (185)
450~600만 미만	64.6	2.0	18.2	4.0	6.1	5.1	100.0 (99)
600만 이상	52.9	9.8	13.7	2.0	11.8	9.8	100.0 (51)
$\chi^2(df)$			19.7(1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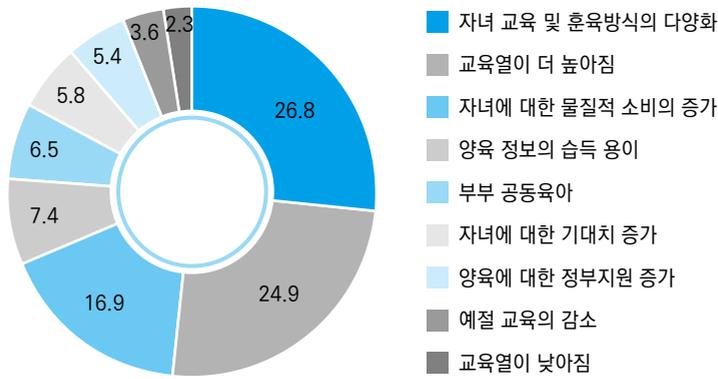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7.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과거에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자녀에게 아낌 없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려 노력하였으며 교육적인 지지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응답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녀를 위해 고가의 육아 용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과거와 비교해볼 때 더욱 강화된 양육문화로 볼 수 있다(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증가=16.9%).

새롭게 등장한 변화로는 부부 공동육아(6.5%)를 꼽을 수 있는데, 2016년의 양육문화가 과거 보수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한국 양육문화의 핵심에는 여전히 ‘교육열’이 자리잡고 있으며 더욱 과열된 양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문화가 변화된 점으로는 자녀 교육과 훈육 방식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해진 것

집 중 조 명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그림 2]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변화한 점

[표 12]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현재 비교: 변화한 점

단위: %(명)

구분	교육열이 더 높아짐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	예절 교육의 감소	교육열이 낮아짐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증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 증가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	부부 공동육아	양육 정보의 습득 용이	기타	계(수)
전체	24.9	26.8	3.6	2.3	16.9	5.8	5.4	6.5	7.4	0.4	100.0 (555)
성별											
여성	25.4	26.8	3.4	1.4	18.2	6.2	4.8	7.6	5.8	0.3	100.0 (291)
남성	24.2	26.9	3.8	3.4	15.5	5.3	6.1	5.3	9.1	0.4	100.0 (264)
$\chi^2(df)$					6.8(9)						
연령대											
20대	20.0	20.0	-	-	20.0	13.3	-	20.0	6.7	-	100.0 (15)
30대	22.5	20.8	2.5	3.3	17.5	7.5	8.3	5.8	11.7	-	100.0 (120)
40대	30.8	30.8	2.9	1.4	13.9	5.3	4.3	4.3	6.3	-	100.0 (208)
50대	20.8	26.9	5.2	2.8	19.3	4.7	5.2	8.0	6.1	0.9	100.0 (212)
$\chi^2(df)$					33.7(27)						
자녀수											
1명	23.3	23.3	3.8	1.5	11.3	10.5	7.5	8.3	10.5	-	100.0 (133)
2명	25.3	26.9	3.6	2.8	18.3	4.2	5.3	5.8	7.2	0.6	100.0 (360)
3명 이상	25.8	33.9	3.2	1.6	21.0	4.8	1.6	6.5	1.6	-	100.0 (62)
$\chi^2(df)$					22.6(1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4	29.9	1.1	3.4	16.1	3.4	5.7	6.9	6.9	-	100.0 (87)
300~450만 미만	27.5	25.5	2.8	2.0	15.5	7.2	5.6	7.2	6.0	0.8	100.0 (251)
450~600만 미만	23.4	24.1	3.6	3.6	21.2	5.1	5.1	6.6	7.3	-	100.0 (137)
600만 이상	17.5	32.5	8.8	-	15.0	5.0	5.0	3.8	12.5	-	100.0 (80)
$\chi^2(df)$					19(18)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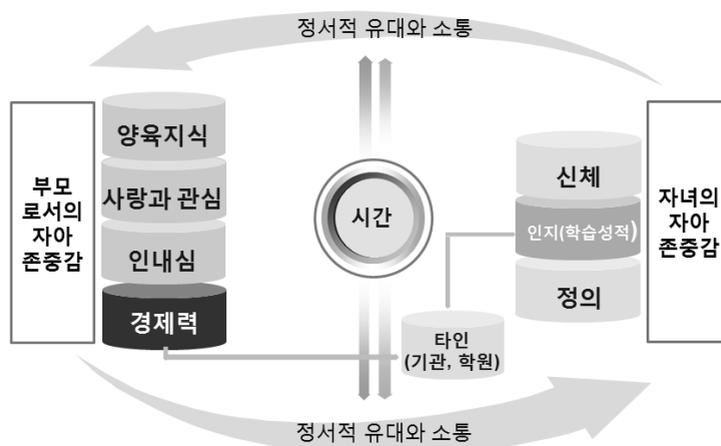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양육문화가 그만큼 복잡다단해진 현재 한국사회와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지던 과거에 비하여 단일한 또는 특정 방식을 고수하거나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제언

본고에서는 2008년도와 2016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2008)’와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을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성인은 자녀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과거(2008년)에 비하여 훨씬 더 크게 인식하나, 부모역할 수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녀

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대학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로 더 긴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이 불충한다고 느끼는 부문으로 ‘경제력’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며, 자녀의 자존감이 위축되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부모 자신이 자녀의 학습을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타인(학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교육 비용지원을 위하여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일에 투자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관계 및 소통이 약화되고 자녀 역시 제공된 비용으로 더 학업성취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구조로 악순환한다. 복잡다단한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시간과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간의 관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3]와 같다.



자료: 문무경 외(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3.

[그림 3]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유대 및 소통

경제력이외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경제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듯하다. 영국의 유명한 종단연구인 EPP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Education)(Sylva, et al, 2004)⁷⁾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은 부모가 누구인가(‘Who you are’)보다는 부모가 자녀와 무엇을 하느냐(‘What you do’)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함께 시간보내기 등의 자녀와의 활동, 부모참여가 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자아 형성, 자아영역, 역할구조 등을 재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부모는 자녀의 학습능력 이외에 예체능 및 자녀가 잘 할 수 있는, 자녀 재능과 꿈을 살려주고자 하며, 이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학습지원에 주력하지 않고 더 다양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년 전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부모가 인식하는 양육문화에서 교육열은 여전히, 오히려 더 과열된 양상으로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즉, 한국부모의 자녀양육관은 자녀의 학교성적, 상급학교 진학, 진로 선택과 취업을 떠나서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육아지원정책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강조한 부모교육과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연구(문무경 외)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나아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으므로, 국가수준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 시기에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1단계),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됨과 관련된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며(2단계), 예비부모나 출산 전 성인을 대상으로 양육 실제에 대한 정보로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3단계).

무엇보다도 한국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불충분함을 완화시키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며 올바른 양육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거부터 지속되는 또는 새로이 부각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Sylva, K., Melhuish, E. C., Sammons, P., Siraj-Blatchford, I. and Taggart, B. (2004).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EPPE) Project*, London: DfES/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